

거울은 사실, 나와 그다지 친한 물건이 아니다. 외려 경원하는 물건에 가깝다. '敬遠'이 아니라 '警遠'. 그래서 우리 집에서 거울은 시계 다음으로 드문 물건이고, 용도도 초라해서 특별한 외출을 준비할 때가 아니고는 하루 한 번 머리 빗질을 위해 15초쯤 들여다보는 것이 전부다. 이유야 말할 것도 없이 거울을 볼 때마다 난 왜 이렇게 우울하게 생겼나 싶어져서겠지만 좀 그럴싸한 핑계를 찾으려니 스무살 시절이 떠오른다.

거울은 만질 수 없고 금방 사라지는 것을 비춘다

방황도, 타락도 확실히 못해보고, 그렇다고 '범생이'나 전사로도 못 살고 어정쩡하게 보낸 그 시절, 누가 뭐라 한 것은 아니지만 거울을 보는 일에 스스로 죄책감을 느꼈다. 거울은 치장을 위해 보는 것이고, 그것은 귀한 시간을 잡아먹는 쓸데없는 일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파우더까지 보송보송하게 바른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하며 마음 속에 서슴없이 경멸까지 품었다. 아마 전쟁이라도 치르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거울의 역사》라는 책을 봤을 때, '사치와 향락의 역사'를 다룬 것인가 생각했던 것도 그때의 부정적인 생각을 떨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거울 자체의 역사뿐 아니라 거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의 변화까지 다룬 이 책을 읽는 동안 거울에 대한 그동안의 무지몽매함과 오해는 산산히 부서졌다. 특히 거울이 자기반성, 나아가 진리탐구의 오브제로 쓰였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로운 발견이었다.

소크라테스는 술 취한 사람에게도 거울을 보게 해서 내면을 살피게 했다고 한다. 이때 거울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비추는 한편, 이상적으로 그렇게 돼야 할 모습을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인간이 악덕을 물리치도록 도와주는 물건이 된다. 더 나아가 거울은 신의 지혜와 우주의 비밀이 담겨 있는 '책'으로 격상된다. 인간이 본래 신을 모델로 만들어졌기에 '관측을 통한 사변', 즉 명상을 통한다면 그 본모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런데, 거울의 이미지는 어쩌다가 향락과 사치, 거짓의 상징으로 전락하게 됐을까. 그것은 거울이 신의 모상으로서 인간을 비추면서 아울러 만질 수 없는 것, 지속적이지 못하고 금방 사라지는 것을 비추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미지의 결정판은 태초에 이브를 유혹한 뱀이 바로 거울에 비친 이브 자신의 모습이더라는 것이다. 악마였던 루시퍼 역시 신의 모습을 훔쳤으니, 인간과 악마는 신의 모방이라는 면에서 변별력을 잃게 된 셈이다.

그후 거울은 인간에게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받아들여졌지만 대개 이 두 가지 모순의 극단 사이를 오갔다. 때로는 거울을 통해 자신과 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안도했고, 때로는 거울 밖에 있는 주체와의 괴리

이 책은 거울을 주제로 쓴 역사적 시론이다. 초기 거울, 유리 거울의 등장, 거울 만드는 기술과 기법의 변천, 거울생산의 대표격인 베네치아의 무라노와 프랑스의 생고뱅 제조소를 둘러싼 이야기 등을 풀어놓아 거울의 역사를 연대기로 정리한다. 또한 인간 속의 거울에 주의를 기울여, 선악, 신과 악마, 남성과 여성, 자화상과 고백의 문제를 탐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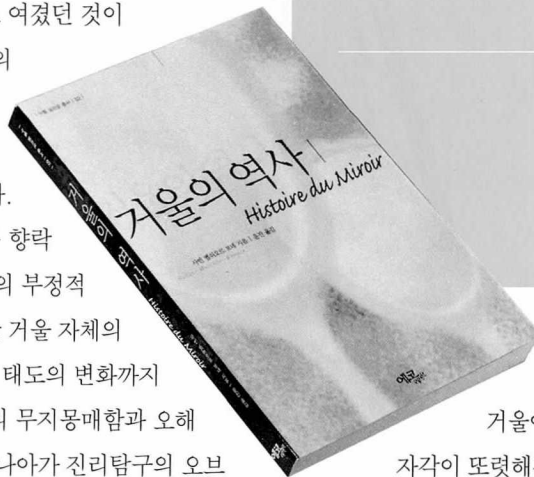
책갈피산책

《거울의 역사》

거울로 비춰보는 인간사

사빈 멜쉬오르 보네 지음 | 윤진 옮김
에코리브르/A5신/352면/14,500원

이현주 | 출판칼럼니스트



감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했다. 이렇게 거울의 역사를 살펴보는 동안 차츰 거울에 대해 이제까지와는 달리 생각해야겠다는 자각이 또렷해졌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소박하다.

삶에 대한 성찰로 등극한 거울보기

세네카는 《자연의 질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예를 들면 성년이 된 사람은 자신의 건강한 육체를 거울을 통해 보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고, 회색해진 머리카락을 발견한 초로의 노인들은 경건하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자연이 샘의 물이나 빛나는 돌로 인간을 비쳐보게끔 한 것도 그 때문이란단.

내게 거울보기도 그런 도움을 줄지 모른다는 기대를 품는다. 가령 커커이 불어가는 중부전선의 심각함을 경고하는 역할을 한다든지, 아줌마의 뻘뻘함이 낯을 덮고 있거나 않은지 살필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다. 지금보다 조금 더 어릴 때, 거울에 대해 내가 건방지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거울 없이도 내 삶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조금쯤은 긴장하고 살았기 때문인 듯하다. 지금, 거울 속의 나는 이렇게 말을 걸 것만 같다. 그 낯의 뻘뻘함이, 아랫배의 살이 네 나태의 증거 아니니, 라고. ■